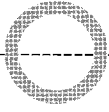


## ESCO 회계·대출 세미나 개최 회계실무담당자 등에게 유익한 자료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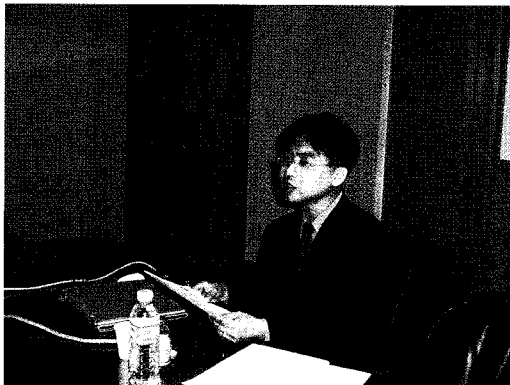


### ESCO 회계·대출 세미나 개최 회계실무담당자 등에게 유익한 자료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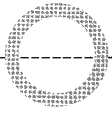
ESCO협회는 지난 11월 26일 서울 시청 앞 소재 삼성연수원에서 ESCO회계 및 대출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날 세미나는 회원사들의 매출채권에 대한 팩토링 방법과 회계처리의 실제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ESCO 매각거래의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팩토링 제도에 대해서는 산은캐피탈의 신형철 팀장이 강사로 나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신 팀장은 “팩토링제도는 성과배분제 계약시 ESCO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채비율 증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라며 “현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환청구권부 매각 방법 하에서는 금융회사가 에너지 사용가와 ESCO 모두에게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회계처리 방법에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매출채권에 대한 ESCO의 미상환금 대리변제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ESCO가 에너지사용가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두 번째 강사로 나선 우리회계법인의 박종민 회계사는 “ESCO가 매우 특수한 제도이므로 팩토링제도 회계처리의 근거자료를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각 은행별로 팩토링 서류가 다르더라도 업무처리 방식과 근거가 모두 동일하므로 동일한 매출채권 양도(팩토링)로 보는 것이 일관성 있는 회계처리라고 설명했다. 특히 관공서와의 ESCO사업의 경우, 계약서에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권 이전을 대금상환 완료시까지 회사에 유보하는 것을 명시하여 관공서 ESCO사업은 ‘장기할부거래’로, 일반 ESCO사업은 ‘일반원칙거래’로 개념을 정리, 회계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ESCO사업을 ‘용역거래’가 아닌 ‘건설공사’로 인식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이 있다는 점을 감안, 회사매출액을 ‘용역매출’ 또는 ‘엔지니어링매출’ 등으로 표현하여 ‘건설공사’로 볼 소지를 차단하도록 강조했다. 참고로 ESCO의 산업분류는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이다.



## 최석곤 회장, 제1회 대구그린에너지엑스포에 초청돼 SK, 삼성에버랜드 등 전시회에 참가 열병합발전 홍보도



美 존 번 델러웨어대학 교수와의 간담회  
고유가 시대 대응 수요관리 강화방안 논의

ESCO협회는 지난 11월 12일 프레스센터에서 회원사 임원 및 공단관계자들과 함께 미국 델러웨어대학 교수이자 에너지·환경정책연구소 소장인 존 번(John M. Byrne) 교수를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주요국가의 최근 수요관리정책동향에 대해 번 교수의 설명을 듣고 우리나라의 에너지절약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또 번 교수는 미국, 유럽 등이 추진 중인 수퍼ESCO사업 동향과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전원 개발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나라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번 교수는 지난 98년부터 우리나라 국회의 환경포럼 정책자문관역을 맡고 있으며 2003년에는 '에너지혁명, 한국의 에너지 고효율을 위하여'를 발간하기도 했다.

최석곤 회장, 제1회 대구그린에너지엑스포에 초청돼  
SK, 삼성에버랜드 등 전시회에 참가 열병합발전 홍보도

최석곤 회장은 지난 11월 15일부터 3일간 대구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04대 대한민국그린에너지EXPO'에 초청돼 개막식 커팅 및 전시회장을 둘러 보았다.

제1회 세계슬라시티총회 부대행사로 기획된 이번 전시회는 최근 엔지업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대거 참가해 주목을 끌었다. 이밖에도 고효율기업체 및 SK, 삼성에버랜드 등 소형열병합발전 ESCO사업을 펼치고 있는 ESCO들이 참가해 각사의 사업아이템을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열병합 관련 세미나가 개최돼 지역 에너지관리자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